



대한민국 경영혁신상 대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혁신
2년 연속 수상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공공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No.1 전문기관



CHECK POINT

- ✓ 연구개발특구역성사업 등을 통한 공공기술 발굴·이전·사업화
- ✓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를 통한 기술 기반 기업 설립·육성·사업화 지원
-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 연구개발특구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융복합 클러스터 여건 조성
- ✓ 국내외 혁신주체 간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주체들의 성과 확산 및 국민 인식 제고



딥테크 기술을 안고 글로벌 도약을 준비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인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협력채널 구축 ▲국가전략기술과 딥테크 분야의 유망기술 발굴 및 창업 지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설립과 성장 지원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장 진입 촉진 등 특화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신규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북미·유럽·아시아 8개 협력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 전략기술 분야 연구 성과를 지역혁신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중앙-지역 간 연계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실행력 중심의 조직으로 체질개선

특구재단은 과감한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실행력 중심의 조직으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SI 중심의 디지털 전환, 대외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이뤄가고 있다. 조직 체질 개선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직개편을 시행했으며, 직무 중심 실무형 인재 채용을 위한 자체 채용 프로세스도 확립했다. 이러한 조직 운영의 우수성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인사 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영 분야 디지털 전환도 눈에 띈다. 클라우드 기반 근무 환경 조기 도입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혁신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내부규정 안내용 SI 챗봇 도입으로 직원들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 효율화에 힘쓰고 있다. 대외 협력과 성과 확산에도 힘쓰는 중이다. 연구개발특구 내 신진 연구자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특구 과학문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체감형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주체들과 함께 현장을 뛰는 실행 중심의 파트너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CEO INTERVIEW

정 희 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우리 재단이 경영혁신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수상이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우리 재단은 최근 ▲글로벌 협력 강화와 특구 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딥테크 기반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제도 고도화를 통한 실증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변화에 발맞춘 전사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추진력을 갖춘 조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공공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화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